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MTA와 함께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제2차 공사 진척 발표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척된 125번가 지하철 확대 제2차 공사에 대해 보조금 신청 접수
확대 공사는 106번가, 116번가, 125번가 등 지하철 역 세 곳을 포함하며 메트로 노스와
연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과 함께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Second Avenue Subway) 확대 공사가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사로 2번가 노선이 이스트 할렘의 125번가까지 연장됩니다. Biden 대통령은 11월 운송 부문에 신규 보조금 2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제2차 공사(Phase 2 of the Second Avenue Subway, SAS2)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두 배로 증액되어 역사적 수준의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MTA는 미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제2차 연장 공사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아직 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제2차 공사는 이스트 할렘의 106번가, 116번가, 125번가 등 지하철 역 세 곳에 대한 공사를 포함합니다. 연방 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은 SAS2를 추진하여 보조금 절차의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실현이 더욱 가까워졌으며 기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Buttigieg 교통장관에게 미 교통부가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제2차 공사 관련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및 경제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 이스트 할렘 주민들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보조금을 수령하여 중요 프로젝트 착공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달 저는 MTA 경영진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연장 부지를 시찰하고 이번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스트 할렘 주민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뉴욕 주민을 위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씬없이 노력해주신 Buttigieg 교통장관, 의회 지도부, MTA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스트 할렘 주민의 약 70%가 통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이러한 수치는 도시 평균이 55%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의 연장은 Biden 행정부 및 뉴욕주의 교통 평등 목표를 추진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일자리, 보건,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돕고, 렉싱턴 애비뉴의 혼잡을 완화하여 공기 질을 개선합니다.

MTA 대표 및 최고경영자 대행인 Janno Lieb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트 할렘 지역사회는 수십년 동안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을 기다려 왔습니다. 제2차 공사는 70 퍼센트 주민이 통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카운티에서 적정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노선 연장은 제1차 공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면,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승객을 300,000명으로 늘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필라델피아 철도 시스템 전체 이용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주신 FTA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1차 프로젝트는 Q 노선을 63번가에서 96번가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50년 동안 운행된 뉴욕시 지하철 사상 최대 규모의 확대 공사였습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은 2017년 1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72번가 및 86번가 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완공 후, 팬데믹 이전 기준 일간 200,00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고, 총 이용객의 수는 1,300만을 넘습니다. 제2차를 위해 사용될 터널 구간은 1970년대 건설되었으며, 세컨드 애비뉴를 통해 11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이어집니다.

간단 개요

- 프로젝트 해당 단계 사업을 통해 철도 서비스를 96번가에서 125번가까지 약 1.5 마일 연장합니다.
- 106번가, 세컨드 애비뉴 116번가, 파크 애비뉴 125번가 등 역이 신축됩니다.
- 제2차는 렉싱턴 애비뉴(4/5/6) 지하철 노선 125번가 및 파크 애비뉴 출입구를 직접 연결하여 승객들이 편리하게 메트로 노스 철도(Metro-North Railroad) 125번가 역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역사는 지상 보조 빌딩으로 이루어져 기계 및 전기 시설을 통해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 소매점 공간을 포함합니다.
- 연장 구간이 완공되면 일간 추가 100,000명 승객이 이용할 것입니다.
- 새롭게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규정에 따라 건설될 세 곳의 역은 높은 수준의 승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 125번가 역의 멀티모달 환승 연결성을 증대합니다. 4/5/6, 메트로 노스 철도,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의 M60 셀렉트 버스 서비스(M60 Select Bus Service) 등 연결을 강화하여 모든 철도 노선의 지하철 및 통근선으로의 환승이 간편해지고 기타 도시 및 지역으로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Chuck Schumer 미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제2차 공사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이스트 할렘 및 뉴욕시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불행히도 너무 오래 지연된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전속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저는 양당 인프라 및 일자리법(Bipartisan Infrastructure & Jobs)에 따라 역사적인 230억 규모의 자금을 대중교통 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가 공정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Kirsten Gillibrand 미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방 투자는 이스트 할렘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제2차 공사가 보조금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통근 시간이 편해지고 혼잡이 완화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도시 다른 지역의 연결성이 개선됩니다. 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켜 이와 같은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뉴욕의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Jerrold Nadle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환상적인 뉴스입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노선을 이스트 할렘의 125번가까지 연장하는 공사는 지하철 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지역의 필요에 봉사하며 렉싱턴 애비뉴 라인의 혼잡을 완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지원하여 연장 공사를 실현할 수 있어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젝트에 협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과 함께 뉴욕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Carolyn Malone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연장 공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엔지니어링 단계로 진입시키고 연방 자금 지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Buttigieg 교통장관과 FTA에 감사드립니다. Q 트레인(Q Train)을 125번가까지 연장하는 공사는 우리 도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스트 할렘과 미드타운, 로어 맨해튼, 브루클린을 연결하여 교통 불모지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많아 혼잡한 렉싱턴 애비뉴 노선을 분산시키는 한편, 주민을 위해 또다른 이스트 사이드 노선을 만들겠다는 오래된 시정부의 약속을 마침내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차 공사를 이끌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 Buttigieg 교통장관, Espaillat 하원의원, Janno Lieber MTA 최고경영자 겸 대표 대행께 감사드립니다."

Adriano Espailla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계속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유색 지역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평등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연장 공사 시작이라는 오늘의 발표는 뉴욕주 전역,

특히 뉴욕시에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대중교통 부족으로 취업 기회, 추가 교육, 병원 및 진료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트 할렘 주민 100,000명 이상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을 새롭게 개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